

지역 소식통

정읍시, 71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읍시가 올여름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재해에 대비해 71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비 90%를 지원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철 기후 전망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됐다.

지원 대상은 총 71개 농작물 품목이다.

시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 가입비의 90%를 지원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6월은 비 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지정돼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투살 상품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가입 절차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클린농촌반

농촌 환경 개선활동

고창군이 지난 11일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클린농촌반원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읍·면별로 구성된 클린농촌반이 농로, 하천변, 마을 주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및 거점수거장소로 운반하는 등 농촌 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추진에 앞서 클린농촌반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수거 방법, 활동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클린농촌반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디에스시동탄 투자유치

투자 협약 체결... 고창신활력산단 951억 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공장 신설

고창군은 고창신활력산단내에 951억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희선 (주)디에스시동탄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디에스시동탄은 자동차 시트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온 중견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팩 관련 기술과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ESS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원 고창신활력산단내 내 부지 5만6637.1㎡(약 1만7132평)에 공장을 신축하는 신설투자다.

총 투자금액 951억원은 토지매입 51

억원, 공장건설 300억원, 기계장비 60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디에스시동탄은 이달중 토지매입과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공장등록과 사업계시를 계획 중이다. 2028년 이후 연간 약 975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고창지역에 7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사무·영업 27명, 생산 48명이 단계적으로 채용되며, 지역 고용 확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SS는 전력 저장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활용되는 핵심 장치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데이터센터 증가·산업 전반의 전기화 흐름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창신활력산단내의 미래산업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방세 수 증대, 지역 내 소비 확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디에스시동탄의 투자는 고창신활력산단내에 미래 제조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절초 꽃축제' 판매장 운영자 모집

정읍시, 10월 8~18일 개최 앞두고... 43곳 먹거리 판매 상인 선정

정읍시가 오는 10월 개막하는 '제19회 구절초 꽃축제'를 앞두고 방문객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43곳의 판매장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구절초 꽃축제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역량 있는 상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식당 9곳, 특산물과 먹거리 판매장 28곳, 먹거리트럭 6곳을 합쳐 총 43개소다.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

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가운데 영업 신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먹거리의 위생 상태와 질을 높이고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음식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품평회를 열어 운영자를 최종적으로 엄선할 방침이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 063-539-56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기념우표 제작

부안군-전북지방우정청, 채석강·적벽강·대월습곡 등 명소 담아 제작... 내달 3일까지 신청 가능

부안군은 전북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홍보를 위해 부안의 대표 지질명소를 소재로 한 특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는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의 대표 지질명소인 채석강, 적벽강, 대월습곡 등의 다양한 사계절 매력을 담아 제작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유산을 보존하고, 교육 및 관광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3년 5월 최초 인증을 받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내년에 첫 번째 재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4년 주기로 재검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5월 진행된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평가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부안군은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GGN)' 등 국제 행사에서 기념우표를 부안의 지질유산을 소개하는 공식 홍보물로 활용해 해외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우표 예약 접수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부안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jb/579) 또는 전화(063-582-001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념우표가 국내 홍보와 향후 세계지질공원 총회 등 해외에 부안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I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새 단장 마쳐

부안 응기종기문화센터

부안군 응기종기문화센터에서는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AI 디지털배움터를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4층 정보화실을 AI 디지털배움터 교육장으로 조성돼 AI 기초교육부터 스마트폰 활용,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인공지능 앱 활용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응기종기문화센터 1층 로비에는 AI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되어, 교육용 키오스크, 인바디, 닌텐도 스포츠존, AI 로봇강아지, VR 헤드셋, 유비오맥과 등 10여 종의 디지털 기기가 구비돼 있다.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키오스크 주문 체험도 있으며, AI 디지털배움터교육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9시~ 오후 4시) 체험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 교육과 체험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 관리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회장 정태호)가 12일 정읍시청 구절초 회의실에서 22기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식 △보궐 자문위원 위촉식 △통일 의견 수렴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활동 안내 △주요 사업 계획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현상

에 따른 한반도 평화 관리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중동지역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와 국제 경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나아가 평화 공존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협의회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정태호 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확산 방지와 해소를 위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도록 자문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통일 의식 함양과 평화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평화통일 기반을 다지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